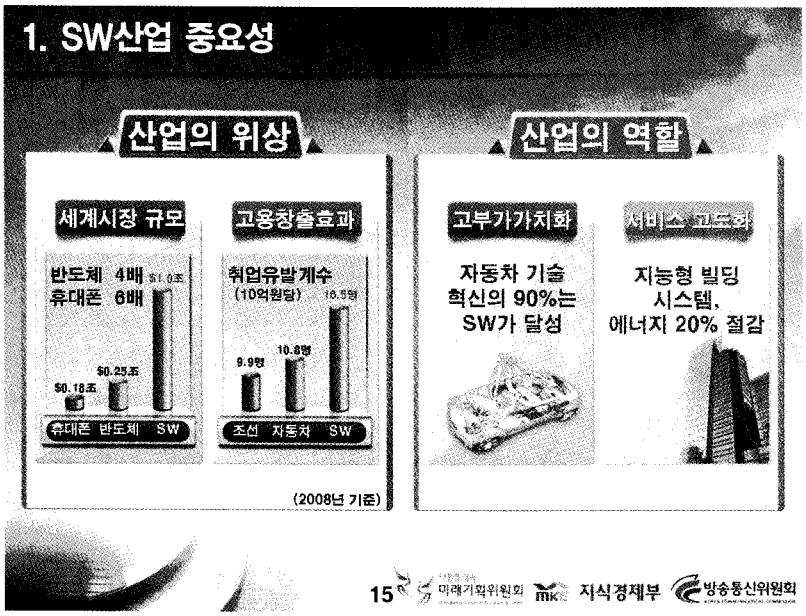
산업경쟁력원천 SW

소프트웨어(SW)산업이 왜 중요하느냐는 산업의 위상에서 2008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반도체세계시장 0.25조달러의 4배, 휴대폰 세계시장 0.18조달러의 6배에 달한다. 산업의 역할에서도 자동차 기술 혁신의 90%가 SW가 달성할 정도로 고부가가치화이고, 서비스 고도화에서도 지능형 빌딩시스템으로 에너지가 20% 절감된다.

SW산업의 현실은 개발역량이 취약하고 낙후된 생태계, 신시장 개척 부족을 들 수 있다. 개발역량 취약에서는 SW전공 기피와 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SW 품질 관리 및 R&D 투자가 부족하다. 4개 주요 대학 SW학과 정원은 2000년 120~130명에서 2008년 30~70명이다. SW개발 역량지수는 인도가 4.3, 미국이 3.06, 중국이 2.97인데 비해 한국은 2.94이다.

낙후된 생태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중소기업시장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대기



업 3사 내부 거래 비중의 평균은 2007년 기준 56%이다. 불합리한 수발수 관행과 높은 불법 복제율을 들 수 있다. 모호한 과업 범위와 헤드 카운드 방식 등이다. 주요국의 SW불법 복제 현황은 2007년 기준 미국이 20%, 일본이 23%, 인도가 59%, 중국이 83%이고, 한국이 43%이다.

신시장 개척 부족에서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베디드SW는 대부분 외산이다. 국산율은 2007년 기준 모바일이 15%, 자동차가 4%, 조선이 3%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40.4%, 영국이 8.5%, 일본이 7.6%, 독일이 6.8%이고 한국이 1.7%이다.

SW산업의 핵심과제에서 글로벌 100대 SW기업을 현재 3개에서 2013년까지 8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IT서비스 부문에서는 6개, 패키지SW 부문에서는 2개 기업이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한다는 것이다. 매출 1,000억원대의 기업은 18개에서 2013년까지 27개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실행전략은 네 가지로 차세대 SW 리더 양성, SW 품질 경쟁력 강화, SW 경쟁 구조 혁신, 글로벌 SW 시장 지향 등이다. 차세대 SW 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600명에 달하는 기업 수요형 인력을 공급하고 SW 장학생을 매년 400명씩 선발한다.

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W공학센터를 신설하고 운용체계(OS) 같은 미래 주도 중대형 R&D를 지원한다. SW 경쟁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대가의 기능점수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글로벌 SW 지향을 위해서는 42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펀드 운영과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시장조사와 유망 분야 발굴 등을 골자로 했다.